

3·1절 진관사, “대한독립 만세”

항일투쟁 정신 기리는 초월 스님 추모 법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불교계 중앙정부였던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는 3·1절 92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과 애국선열 33인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추모법회를 3월 1일 봉행했다.

진관사는 2009년 5월 칠성각(서울시 문화재 제33호) 해체복원 중 불단과 기둥사이에서 백초월 스님의 유품인 태극기 및 독립운동 사료 6종 17점을 발견했다.

1919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작한 태극기 1점을 비롯해 <독립신문> 2종 4점, <조선독립신문> 5점, <자유신종보> 3점 등 이다. 태극기와 함께 보관됐던 사료 가운데에는 단재 신채호가 중국 상해에서 창간한 <신대한> 신문과 독립운동세력이 발간해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한 <자유신종보> 등의 자료가 처음 공개됐다.

이날 대웅전에서 열린 추모 법회는 헌화 및 묵념, 추모사와 축사, 초월 장학금 전달, 합창,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총무 법해 스님, 전두인 신도회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미경 서울시의원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계호 스님은 “백초월 스님은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독립투사였으나 역사에 묻힐 뻔했던 이름이 2009년 칠성각 해체복사도중 발견된 태극기와 독립신문으로



3·1절 진관사에서 주지 계호 스님과 사부대중이 만세 삼창하는 모습.

로 열반 60년 만에 빛을 보았다”며 “후손으로서 스님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재조명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축사에서 “은평구에 항일운동에 앞장선 스님이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며 독립신문 30호에 실린 <태극기> 중 일부 ‘삼각산 마루에 새벽빛 비칠 제 네 보았나 보아 그리던 태극기를 네가 보았느냐’를 읊어 추모 분위기를 고취시켰다.

진관사는 초월 스님의 후진양성 뜻을 기리는 ‘초월 장학금’을 제정하고 이날 처음 전달했다.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 중 모범이 되는 2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가정 형편에도 줄곧 1등을 노치지 않았다는 권성

현(20, 서울대통계학과) 학생은 “뜻 깊은 장학금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초월 스님의 뜻을 이어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당찬 포부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행사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대웅전 앞마당에서 진관사에서 발견된 태극기 모형을 흔들며 “대한 독립만세”를 삼창했다.

한편, 대웅전 앞에는 민족대표 33인을 상징하는 33개의 태극등을 달고 항일운동 사진도 함께 전시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추모 했다.

백초월 스님(白初月:1878~1944)은 불교계 독립운동을 주도하다 1944년 6월 66세로 옥사했다. 그러나 진관사에서 태극기

백초월 스님 행적

1878년 경상남도 진주 출생. 본명은 인영(寅榮)이며 호는 초월, 법명은 동조(東照).

1916년 명진학교(明進學校) 교장

1919년 한국민단부(韓國民團部) 부장으로 항일운동 전개

1919년 <혁신공보(革新公報)>를 발간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중국 지린성의 독립군에 보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군자금을 모금운동.

1920년 일본유학생들이 주도한 3·1 운동 1주년 기념 시위에 관여하다가 도쿄에서 붙잡힘.

1939년 화물열차에 ‘대한독립만세’라고 낙서한 사건에 연루돼 일본 경찰에 잡힘. 그 뒤 마포·대전 형무소를 거쳐 청주형무소에서 옥사. 유해(遺骸)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형무소 공동묘지에 묻혔다 6·25전쟁 때 망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됨.

가 발견되기 전까지 역사 속에 묻혀 있었다. 대선사였던 백초월 스님은 중앙학림 내 한국 민단본부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법회를 열어 융통한 돈을 임시정부지원금으로 송금했다. **천진영 기자**

석길암의 한국불교 승려열전

콧구멍 없는 소가 돼야지

경허성우(鏡虛惺牛:1849~1912)①



구한말에 활동한 인물인 경허성우(鏡虛惺牛:1849~1912) 스님은 근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스님은 당대의 걸출한 선객을 길러내어 근현대 한국불교에 선 전통을 부흥시킨 인물로, 특이한 행적이 오늘날까지 인구에 회자되는 분이다.

어려서 부친을 잃은 스님은 9세에 어머니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서 의왕에 있는 청계사에서 계허(桂虛)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1854)

경허 스님은 당대 제일의 그 강원에서 불교 23세에 강사가 됐다. 불교 23세의 강사였지만, 스님이 개강하자마자 사망에서 학인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강백으로서의 길이 경허 스님의 길은 아니었던 듯하다. 1879년, 경허 스님이 이미 환속해버린 옛 스승 계허를 찾아 한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도중에 경허 스님은 심한 폭풍우를 만나 가까운 인가를 찾아가서 비를 피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마을에 돌림병이 유행하는 바람에 두려움에 질린 마을 사람들이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겨우 겨우 한 초가의 처마를 찾아 들어가 경허 스님이 방을 내줄 것을 청했을 때, 오히려 주인이 되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데 이 사지(死地)에 들어왔는가?”

당시의 돌림병은 곧장 죽음으로 인도하는 사신과도 같은 것이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한없이 치밀었다. 곧장 마을을 벗어난 스님은 비도 피하지 못하고 나무 등걸에 몸을 웅크린 채 돌림병과 죽음의 위협에 밤새 시달렸다. 한참 두리뎠음에 떨고 있으려니 온갖 상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생사일어(生死一如)! 그 한마디를 수없이 배우고 가르치던 내가 아니던가. 현대 겨우 돌림병이며 시체만 말에 놀라 이토록 허둥대다니.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행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심한 자괴감이 경허 스님을 괴롭혔다.

그 길로 스님은 동학사로 되돌아와서 강원을 폐하고 말았다. 경허 스님을 신임해 강주를 맡겼던 만화 강백의 만류도, 경허 스님의 명성을 듣고 스님에게 배우고자 전국에서 몰려든 학인들의 만류도 소용이 없었다. 문고리를 걸고서 용맹정진을 시작했다. 장문 밑으로 주막밭이 들어올 만큼의 구멍만 뚫어놓고, 한 손에는 칼을 쥐고, 목 밑에는 송곳을 꽂은 널판자를 놓아 졸음이 오면 송곳에 다치게 잠지려 잠을 자지 않고 정진했다. 석 달째 되던 날, 제자 원규(元奎)가 동학사 밑에 살고 있던 이처사(李處士)로부터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야지”라는 말을 듣고 의심이 생겨 그 뜻을 물었다. 그 말을 듣자 모든 의심이 풀리면서 오도(悟道)하였다. 이처럼 생사의 간두에서 생사를 뛰어넘는 길을 발견했지만 스님의 오도송은 단순히 그 생사의 벽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는데/ 의발을 누가 전하겠다는 것인가/ 의발을 누가 전하겠다는 것인가/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는데.(四顧無人 衣鉢誰傳 衣鉢誰傳 四顧無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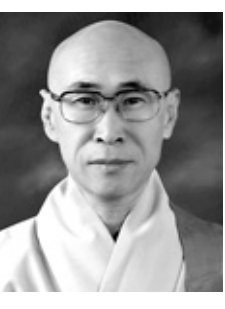
이름난 강사가 됐으나, 그 이름은 생사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책을 주지 못했다. 그때 거기에서 스님은 절절히 조선불교의 암울한 현실을 보았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현실은 깨달은 자의 삶이 현실에 어떻게 절절해야 하는지를 요구했던 것이 아닐까. 의발을 전하고 받는 상징적인 계보와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은 자의 삶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그레야만 깨달음이라는 간절함이 스님을 화두로 이끌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간절함에서 근대선의 새로운 행방이 결정되었던 것이 아닐까.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학한국센터 교수

‘할’은 뭐고 ‘악’은 뭘까?

한글번역 표준화 주장. 문장은 가사형태, 실용성 필수

승가대 역경학 전공 정우 스님



정우 스님은 “최근 선(禪)수행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기존의 한글로 번역된 선 수행 관련 불전은 본래의 목적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악’이라고 한국어 감탄사 형태의 의성어를 사용하는 번역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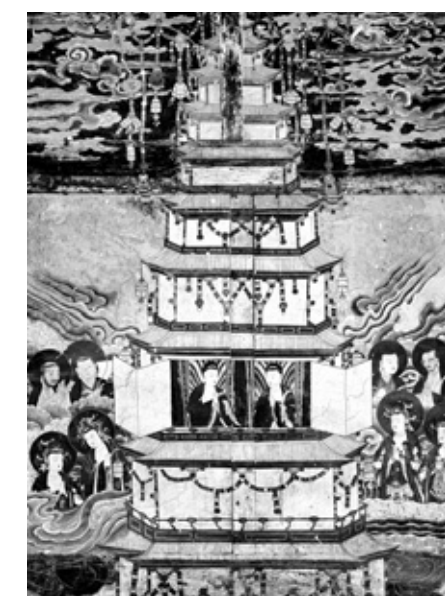
승가대 역경학 정우 스님(사진)은 2010년 승가대 박사학위 논문 <불전 한글 번역역과 용어에 관한 연구>에서 ‘한글 번역 표준용어’ 선정을 통한 경전의 한글번역 정비와 통일을 제안했다.

정답이 어려우며 현실적인 욕구에 부응하기 미흡하다”며 “불전들의 한글번역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 스님은 “장문의 계승 불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형식을 ‘가사’의 형태로 문장을 구성해 원본의 문체를 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연 기자**

양산 통도사 벽화 보물된다

18세기 불교회화 중요 가치... ‘입학도설’ 등 6건도 보물지정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2월 25일 양산 통도사 영산전 벽화(梁山 通度寺 靈山殿 壁畫·사진)의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양산 통도사 영산전 벽화(梁山 通度寺 靈山殿 壁畫)’는 우리나라 사찰벽화로서는 유일한 <법화경> 견보탑품 벽화를 비롯해 조선 후기 석가여래 팔상도의 도상에 기본이 된 <석가여래화사지>의 내용을 그린 것으로 18세기 불교 회화사상의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이 밖에 ‘대승기신론소’와 ‘백지금니 범망보살계경’ ‘이순신 관련 고문서’ ‘춘추경좌씨전구해 권60~70’ ‘입학도설’ ‘동인시화’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예고됐다. **천진영 기자**

심인불교대학 <心印佛敎大學>

2011년 제1기 심인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근본사상(佛敎根本思想)과 대승보살(大乘菩薩)의 실천수행(實踐修行)을 기본(基本)으로 하여 즉신성불(即身成佛)을 대원(大願)하는 ‘심인불교대학’ 법우(法友)를 모집합니다.

모집과정	제가불자, 법사, 비구, 비구니(승려)
교육기간	● 입학 : 2011년 4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 졸업 : 2011년 10월 2일 (일요일) 6개월 과정
교육과목	■ 불교(佛敎)란 : 근본불교(根本佛敎)의 기본사상(基本思想) ■ 밀교(密敎)의 삼대사상(三大思想) - <육대(六代), 사만(四曼), 삼밀(三密)> ■ 만다라(曼荼羅) <화엄(華嚴)사상(思想)>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 <우리나라 만다라, 화엄신중, 감로만다라(병화)> □ 불신론(佛身論) = 밀교의 삼륜신(三輪身), 현교의(三身佛) □ 진언과 수행(眞言과 修行) = 삼밀정진(三密精進) □ 진언염송(眞言念誦) = 육자대명왕진언(육마니반메홍)
특별과목	● 공사상(空思想) = 쉰이란? ● 운명과 숙명(運命과 宿命)이란? ● 명상법(冥想法) = 위빠사나 수행법, 참선수행법 ● 밀교(密敎)의 성불론(成佛論)과 현교(顯敎)의 성불론(成佛論)
교육시간	● 매주 : 일요일 오후 2시부터 ~ 오후 4시까지 2시간
교육장소	● 무애정사 (심인불교대학) ● 법사과정 : 대학졸업자

※ 수강료 교재비 무료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심인불교대학 무애정사

문의 031)675-3837, 팩스 031)675-3827, H·P 011-9356-3653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688-7번지 삼현빌딩 3층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연수원 (바라, 작법부)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본 예술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2기(6개월 과정) 학인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학 과	강 의 내 용	요 일	시 간	특 강
1. 기 초 이 론	이론 및 실기·사물, 각종 사찰행사 실기	목	5~6시	●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인간문화재 보유자 경호 큰스님 직강 ●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바라무 조교 보령 스님 직강
2. 전 문 의 식	· 전통소리(안정사) · 삼신이음 및 전통불교의식 · 무형문화재 제9호 오공양 작법소리 · 북청계(천수바라)	금	5~6시	●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이사장 및 부산영산재작법부 조교 원산 스님 직강 ● 속성반 1. 바라, 작법부, 실천위주 2. 화청, 살풀이, 극락무, 승무, 사주신주, 구공법, 조상영가 찾는법
3. 바 라 작법부	· 오공양 작법부 (운심작법, 다계작법, 삼귀의작법부) · 천수바라(무) (사다라니바라)	목·금	4~5시	부산시 지정 무형 문화재 제9호 부산 영산보존회 등록되어 있는 바라, 작법부

■ 특 전 : 1. 본교생(졸업)으로서 성적우수한 자는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전수 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계 행사 출전 실무
3. 년 1회 정기행사 직접공연 (공연 발표회, 영산대제, 산신대제, 수륙대제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모집기간 : 2011년 2월 20일 ~ 3월 20일 (수시)

■ 입 학 식 : 2011년 3월 24일(목) 오후 3시

(사)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권영축사
부산영산보존회 바라 작법부 연수원 / 부산 동구 범일동 1454-17번지 영축사 (구, 만덕동 해동사)
연락처 : 이사장 원산 스님 011-582-8975 / 혜화 교무스님 010-2563-5550